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소통·민생’에 초점

지난 2006년부터 12년 동안 이어온 문동신 군산시장의 군산호가 맞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는다. 2006년 7월... 당시 군산시민들은 소외와 낙후된 도시의 꼬리표를 달고 국책사업 유치 실패 등으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해 강력한 여당의 후보를 무너뜨리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문동신 군산시장은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한 변화를 가져왔다. 민선4기부터 민선6기에 이르기까지 문 시장의 시정운영은 한마디로 소통과 민생을 살피는 ‘민귀군경(民貴君輕)’ 즉 ‘백성을 귀하게 여긴다’로 표현할 수 있다. 군산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문동신 군산시장의 지난 12년의 성과와 새로운 민선7기가 추진할 숙제는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물 끼진 항구, 관광·문화·어린이행복도시되다

문 동신 시장 퇴임사



“금강 기적의 시대... 중심에 군산 있을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군산시장에서 군산시민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2년 전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취임선서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금강과 내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 활성화와 새만금을 연계한 개발을 통해 군산이 동북아의 경제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기억합니다. 시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 다짐을 모두 실현해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목표한대로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해 왔다는 사실만큼은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성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시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우리 옛 말처럼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 이후 금강 기적의 시대가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군산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군산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나온 12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도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요성과 돌아보기

지난 2006년 민선4기 이후 올해까지 군산호의 선장인 문동신 군산시장은 물 끼진 항구도시를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관광·기업도시, 문화·예술·체육도시, 어린이행복도시’로 변화시켰다. 2014년 7월 1일 민선6기가 시작되고 2018년 6월 현재 군산은 구도심 시간여행마을을 중심으로 근대역사문화벨트화 사업을 통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129만명을 시작으로 2년째인 2016년에는 200만명의 관광객이 군산을 다녀갔고 3년째인 2017년에는 관광객 35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5월 31일 기준 현재 고군산군도의 관광객 증가로 인해 199만여명이 군산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51.2%가 증가한 수치로 연말이 되면 500만명 관광객 유치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군산시의 이러한 관광도시로의 변화의 계기는 침체된 원도심의 성공적 도시재생,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시간여행축제와 군산야행으로 대변되는 축제 등이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고군산 섬 관광, 전국적으로 그 유명세가 자자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광역화 등 풍부한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외지 관광객 유입의 요인이 되어 관광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된 올바른 정책관단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다음으로 문 시장의 또 다른 성과는 지방중소도시인 군산의 문화예술 인프라 수준을 웬만한 광역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 2013년 5월 정식 개관된 군산예술의 전당은 그동안 대도시에서나 관람이 가능했던 ‘명성황후 뮤지컬’, ‘조수미 30주년 콘서트’,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시민들에게도 제공하는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군산 문화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군산시는 체육 분야도 시민들의 참여와 관람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공인대회인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와 군산이 낳은 축구영웅 채금석 선생을 기리는 금석배 축구대회, 새만금 걷기대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은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안전한 여가 선용의 장 마련을 위해 지난해 소룡동에 건립한 야외수영장은 개장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6만 5천명이 이용할 정도로 히트상품이 됐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과거 역전의 명수로 불리던 체육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문동신 시장이 그동안 추진한 많은 사업 중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 조성사업은 과연 문 시장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사업이다



구도심 시간여행마을 중심 근대역사문화벨트화 사업 큰 성과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 개관으로 수준높은 문화예술 시민에게 제공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조례 제정·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 원활

1. 새만금 방조제
2.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3. OCI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기공식
4. 어린이행복도시 인증
5. 어린이·청소년 의회 발대식

시는 지난 2016년 10월 10일 전국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어린이행복 예산서 발간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후속조치도 원활히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아동영양평가제도 도입과 새만금 어린이랜드 조성, 월명공원 유아체육숲 조성 등을 통해 어린이가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내용의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완성하기는 군산시의 시정운영과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가며 문 시장이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경제 활성화 분야를 손꼽을 수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예산은 투쟁이다’는 신념으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를 확보했고 분양률 23%에 불과한 산업단지를 살리고자 ‘솔베이’, ‘도레이’ 철단소재 군산공장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한 484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9조1천억원의 지역 내 총생산 전복도 1위로 도약한 자력을 보여주는 성과로 이어졌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특화를 통한 경영개선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대학병원 유치,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 비문해교육,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의료환경개선 및 시민체감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함께하는 생활복지, 100세 건강도시 조성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